

비틀스의  
신화 속으로



래리 레인지 지음 | 강주현 옮김 |  
나무생각 | 276쪽 | 값 9,800원

《오만한 CEO 비틀스》

해체한 지 30여 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두터운 마니아 층을 이루고 있고, 수많은 대중음악가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룹 비틀스. 그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의 신화이자 브랜드이다.

래리 레인지는 《오만한 CEO 비틀스》(원제: *The Beatles Way*)를 통해 이 신화창조의 비밀을 몇 가지 원칙으로 범주화시켜 이야기하면서 우리 범인들이 어떻게 보다 보람차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꿈, 목표, 마음가짐, 팀, 관리, 변화, 영혼... 이것이 저자가 비틀스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에서 채록한 일곱 가지 화두이다. 저자는 비틀스가 각 장의 제목을 구성하는 이 일곱 가지 화두의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꿈을 이루어가고, 성취한 목표를 지속시키고, 마침내는 안락하고 달콤한 성공의 안락의자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성공을 다룬 책을 즐겨 읽지 않는다. 이런 류의 서적이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성공 지상주의가 탐탁지 않기도 하거니와 내 스스로가 그리 성공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에서는 동류의 책들이 지니지 못한 미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것은 저자가 말하는 성공이 결코 물질적인 풍요 또는 사회적인 명예 등 세속적인 성공과 전적으로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이 책이 살펴보고 있는 비틀스의 삶이 그러했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즉, 비틀스가 젊은 시절 돈에 대한 노골적인 애정을 드러내 보이며 차트에서의 성공에 목말라 하던 틴팝 밴드였고, 실제로 다른 어떤 대중음악가보다도 많은 것을 성취해냈지만 또다시 그 틀을 깨고 사회적 정의와 영혼의 고결함을 위해 내면의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세속적인 출세만이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미덕은 소재의 참신함 - 적어도 국내에 있어서만큼은 - 이다. 국내외의 대중음악 또는 대중음악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한 서적이 일천한 국내 출판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만한 책이 국내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이 팝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비틀스의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이 자리를 빌어 출판사에 더 많은 대중음악 서적을 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미덕은 묘사의 생생함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음반 프로듀서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저자는 특유의 말솜씨에 해박한 음악지식을 곁들여 생동감 있는 글 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적재적소에 비틀스의 가사, 인터뷰, 에피소드, 그리고 그들의 곡에 대한 분석 등을 배치한 저자의 재능 덕분에 나는 때로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꽤기만만한 젊은 비틀스의 바로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아직까지 팝듣기를 젊은 시절의 통과이레 정도로 여기는 국내정서를 감안할 때 대중음악가를 소재로 한 '성공학' 서적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여하튼 비틀스의 자잘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은 이, 비틀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음악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이, 그리고 성공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노래 한 자락쯤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Jai guru deva om" **한글**

박준근(popi.com 운영자)

## 지구촌 경제 조감도 《seri 전망 2003》VS《2003 대예측》

경제연구원들에게 2003년은 미답의 동굴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산재해 있어 경제지표의 계량화 내지는 데이터화가 난감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2003년의 조감도라 할 수 있는 《seri 전망 2003》과 《2003 대예측》이 나왔다.

《seri 전망 2003》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진단한 40여 개의 이슈에 대한 전망을 실었고, 《2003 대예측》은 각계 전문가 122명의 전망을 실었다. 『seri 전망 2003』은 표본을 좁게 잡는 대신 전망의 깊이를, 《2003 대예측》은 표본을 넓게 잡아 개별 업종에 대한 전망까지 시도한 것이 다르다. 그렇지만 전망 시도에 대한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책이 바라보는 2003년은 안개 속이다.

2003년의 경제 움직임에 포착하는 데 장애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여부이다. 정말 공격을 할 것인지, 공격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전이 될 것이냐 장기전이 될 것이냐에 따라 경제 전망은 달라진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기름 값이 출렁일 것이기 때문이다.

《seri 전망 2003》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후 장기전 양상을 떨 경우 원유값이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라크에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유가가 20달러 선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2003 대예측》에서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2003년 상반기에 개시되고, 단기간에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다면 주식시장과 투자부문의 침체를 만회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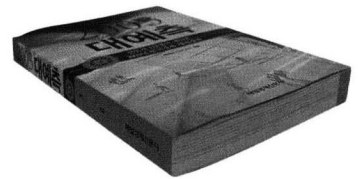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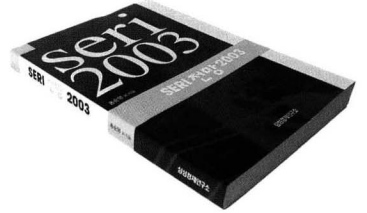
두 책 모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대부분 경제연구소의 데이터 역시 5%대 성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 출현에 대한 '개혁' 변수가 정밀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정부의 경제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전망이 빛나갈 것에 대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003 대예측》은 또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는 전제하에 신정부의 벤처 정책이 잘못될 경우 코스닥 지수가 30선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 눈길을 끈다. 이는 미국의 IT산업이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심장한 경고이다. 부시 정권이 기본적으로는 굴뚝 산업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두 책은 모두 국내 경기 성장의 한 축을 소비 심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내실과 관련해 걱정되는 요소다. 두 책 모두 패션 할인점 홈쇼핑 등에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부여하면서 소비 시장의 고급화 현상을 예상했다. 이런 예측은 빈부 격차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빈부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정치적 숙제 보따리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역시 경제 전망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seri 전망 2003》은 중국의 성장률을 7%대로 잡았고, 《2003 대예측》은 8% 성장까지 점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미 중국 시장에 많은 부분을 내주고 있는 우리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분석은 우리 산업계에 경보로 받아들여져야 할 듯하다. 《2003 대예측》은 제지산업 중 인쇄용지 부문의 성장률을 4%로 예측했다. 이는 나라 전체의 예상 성장률 5%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서 종이문화의 운명을 생각하게 해준다. **■**

임동헌 기자

흐렸다  
맑을 것으로 예상,  
미국 움직임 따라  
소나기 내릴 수도



홍순영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발행 | 352쪽 |

값 12,000원

매경 ECONOMY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발행 | 424쪽 |

값 15,000원

실증적으로 기술한  
중국  
현지견문록



오마에 겐이치 지음 | 정유선 옮김 |  
청림출판 | 272쪽 | 값 12,000원

《차이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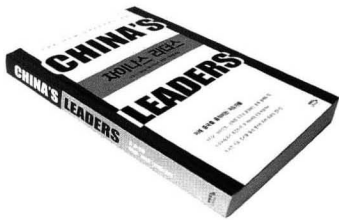
《차이나 임팩트》의 저자인 오마에 겐이치는 UCLA 대학 정책학부 교수로, 세계적인 경제 평론가이다.

이 책은 기존의 그의 저서 《국경 없는 세계》와 《지역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는 역동적인 중국의 변화는 통계상의 숫자와 과거의 해석 방식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보고 현지로 직접 달려가 중국의 실태를 확인했다. 즉 중국에 대한 현지견문록이라 할 만하다.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중국 관련서가 중국 진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매뉴얼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차이나 임팩트》는 현지 중국 경제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담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독특한데, 중국을 단일국가로만 바라본다면 중국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지방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베이(東北) 3성 등 연안부에 위치한 여섯 개의 지역이 특히 지역적 독립성이 강하다. 이 지역의 면적, 인구, 경제적인 역량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중국의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지역을 오마에 겐이치는 ‘메가리전 mega region’ 이라고 부르며, 지역 region 의 틀을 넘는 거대지역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메가리전’ 개념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새로운 중국과의 경쟁, 교섭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세대교체에 대한  
분석



리청 Li Cheng 지음 | 강준영·김만기  
박보현 옮김 | 예담차이나 | 360쪽 |  
값 12,000원

《차이나스 리더스》

이 책은 미국의 중국계 학자인 해밀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리청이 제 16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계기로 중국의 소위 제4세대라는 특정 집단이 21세기 중국 정치의 새로운 핵심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대전제하에 저술한 것이다. ‘정치세대(political generations)’ 라는 개념 자체가 그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대’ 라는 개념은 동년배 그룹으로 정의되곤 한다. 같은 세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사회, 정치적 태도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통상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를 분류하는데, 중국 당대사를 보면 정치 엘리트를 다음과 같이 다섯 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1세대는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혁명군 출신, 2세대는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 항일 전쟁 군인들, 3세대는 장쩌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전환기의 공산당 간부들, 4세대는 후진타오를 위시한 문화대혁명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5세대는 40대 초반의 경제개혁 엘리트 집단을 말한다.

저자는 이들 인물과 각종 세력을 정치 제도적 측면보다는 그들의 비공식적인 연계에 더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특히 4세대라 불리는 지도자들의 성장배경부터 학벌과 인맥, 승진 배경, 인민들의 평가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리청은 4세대가 이전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 비해 ‘서로 다른 견해나 가치관에 대해 보다 관대하다’ 고 보고, 인민을 위한 정책과 민주적인 발전에 보다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글**

양선희 기자

《모든 것은 브랜드로 통한다》

브랜드라는 관점으로 다양한 부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실례를 제시한 책으로, 굳이 브랜드 광고 쪽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을 '브랜드' 라는 시각으로 바라본 것인데, 기업, 팝문화, 정치, 사회, 도시 이야기 등등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저자인 박재항 씨는 삼성 해외 브랜드 전략의 '살아 있는 역사' 로 평가받는 인물로, 현재 제일기획 미주법인에서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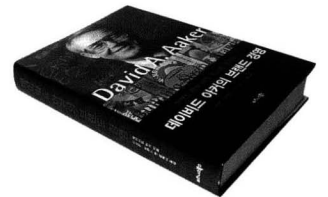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미래형 기업 전략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경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한 책이다. 브랜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통하는 데이비드 아커는 브랜드 전략을 기획하고 적용하려는 마케팅 담당자들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브랜드 전략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특정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브랜드 관리자가 제품 속성을 초월하여 브랜드 개성, 조직과 관련되는 연상, 브랜드 심벌 등을 통해서 열망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브랜드 경영 전략 수립의 세세한 점을 다루고 있는 실무 지침서로 유용하다. **★포인트**

양선희 기자

두 권의  
브랜드 이야기



박재항 지음 | (주)사회평론 | 240쪽 | 값 8,500원

데이비드 아커 지음 | 이삼민·브랜드 앤 컴퍼니 옮김 | 비즈니스 북스 | 540쪽 | 값 25,000원

一喜一悲

cartoon



만화가 류도우(龍登)씨는 1947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대학 재학 시절 사카이시후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작품 활동에 시작했고, 졸업 후 사카이시후만 마니치신문 등에 장기간 연재를 하면서 일본 출판 만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미부 마코토(みぶ まこと)라는 필명으로 활동중이다.

《아저씨 우물쭈물》(おじいちゃんまご) 《트》의 있다.

작가 프로필



일본의 중견 만화가 류도우 씨가 한국의 <출판저널> 복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작 카툰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